



도시계획, 지역개발 및 정보화사회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결과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Planning, Region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ociety(CORP)

2010. 6.

통계개발원

I 개 요

1. 출장개요

- 참가회의 : 제15차 도시계획, 지역개발 및 정보화사회에 관한 국제회의*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Planning,
Region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ociety(CORP)
 - 주 관 : 국제도시지역학회(ISOCARP,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및 오스트리아 Real Vienna
 - 기 간 : '10. 5. 18.~20.
 - 개최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출장자 : 연구기획실장 서운주, 통계사무관 박현정

2. 출장목적

- 주요국의 도시·지역 정책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정책 수요에 맞는 통계지표체계* 마련 및 조사항목 재구성에 활용

* 통계개발원은 지역통계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도시통계 개편 방안'(행안부 수탁과제)을 연구 중

- 특히, 이번 회의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주제로 논의하므로 미래지향적 도시통계 지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II 주요 내용

1. 회의 내역

□ “도시계획, 지역개발 및 정보화사회에 관한 국제회의” 소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Planning, Region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ociety(CORP)

- 국제도시지역학회에서(ISOCARP,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에서 주관
- 1996년 이후로 유럽 내에서 매년 개최되며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연구기관, 정책부처 전문가 등이 논문 발표 및 토론

□ 제15차(2010년) 회의 내역

- (참가 규모)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약 500명의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관련 각계 전문가 및 실무자 참여
- (회의 구성) 총 49개* 세션으로 구성, 약 190편 논문 발표
* 10개 세션은 독일어로 진행
- (주요 주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살기 좋은 도시 형성을 위한 정책, 산업별 추진사례 공유
 -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survey) 및 평가
 - 살기 좋은(Livable) 도시 등 지역 개발 사례
 - 도시설계와 라이프스타일 변화
 - GIS 등 IT기술을 활용한 사례 등

2. 발표 내용

【 제1일: 5.18(화) 】

< 개회사 >

◆ Manfred Schrenk

Conference Director and Managing Director at 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Technology

- 오늘날 도시환경의 다양성에 관하여 경쟁과 스트레스 등 공격적인 공간인 동시에 경제문화의 중심, 창의성, 혁신 등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장소라고 언급하며 현재 50%이상 인구가 도시에 살며 곧 70%이상이 살게 될 것이라 강조
- 대부분의 도시들은 많은 변화를 겪으며 정책 입안자 등은 정책의 성공여부를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언급
“많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을 도시계획 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상호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 기조연설 1 > 모두를 위한 도시 : ISOCARP의 기여

◆ Ismael Fernandez Meija(ISOCARP 회장)

“CITIES FOR EVERYONE: the contribution of ISOCARP,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City and Regional Planners towards liveable, healthy and prosperous cities around the globe”

- 개별 도시마다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문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 등의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비법(recipe)은 없음을 강조
- 도시는 사람이 모여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특징임
 - 개발이 먼저고 인프라 구축이나 인프라 구축후 개발이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후자에 입각하여 경제, 설계(design), 사회에 관한 도시계획시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야함

< 기조연설 2 > 도시의 효율성(Efficiency in the City)

◆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

Stefan Denig, Siemens AG Deutschland, Head of Corporate Communications(Corporate Communications and Government Affairs)

-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은 몇 가지의 핵심적인 동인(key drivers)에 의해 추진됨을 지적, "보존 및 지속 가능한 환경의 생성은 큰 도전" 이며 이와같은 목표 도달을 위해 기술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
- Denig의 런던 연구사례 발표(McKinley와 공동 수행)
CO2감소 노력과 개인적인 대안 선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음을 발표, 에너지 절약에 기반을 둔 지멘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여 기술 혁신이 비용을 상쇄한다는 내용을 설명
 - 런던은 효율성 측면에서 대규모 시민의 동참으로 유럽 녹색도시지수* (European Green City Index)에서 상위를 차지
 - 거버넌스(국정관리) 측면에서도 14~30개 도시에서만 현재 제도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을 인식시키기 위한 역할 필요
 - 이번 사례의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지멘스는 단지 7.3% 투입으로 재생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개인의 선택이 가장 큰 역할을 함을 뒷받침

* 녹색도시지수

독일계 기업인 지멘스가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유럽 30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녹색도시지수를 발표한 바 있고, 현재 아시아 23개국을 대상으로 녹색도시지수를 올해 10월에 발표예정

< 세션 3 > 미래도시의 창조 : u-C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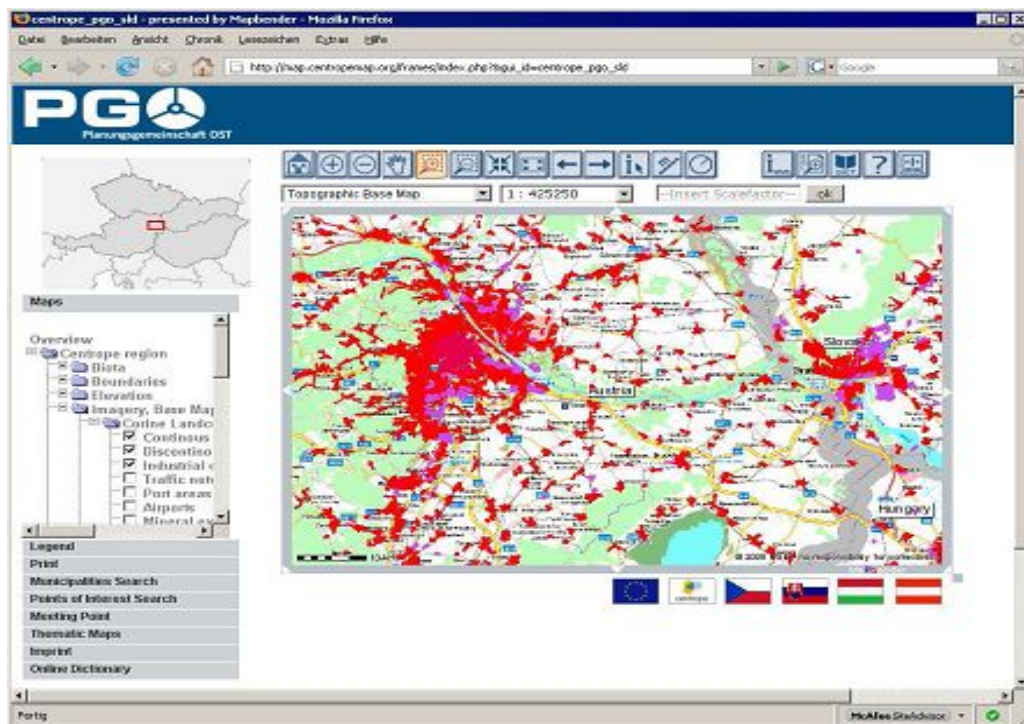
◆ u-City 지수 : 미래 유비쿼터스 도시(the u-City Index: Integrated plan implementation of future ubiquitous cities)
Andrew MACIAS-DIAZ,
University of St Andrews, School of Management; St Andrews, UK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도시, 정부, 모든 형태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에서는 그것의 적용이 필요
 - ICT 발전 속도는 변화적응 속도보다 빨라 인터넷 효용이 증가할수록 정보소유계층(information have)과 비소유계층(information have-not)간 격차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모든 단계에서 심화되는 경향
- * 정보 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격차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식과 생각의 격차, 감정의 격차, 문화의 격차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할 개연성도 높아 "디지털 격차"로도 불림
- 도시차원의 복잡함과 활력은 다양한 도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더하여 1990년대 이후로 인터넷 사용이 증가되면서 도시정책 담당자가 직면한 딜레마이며, 유비쿼터스*가 증가하면서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 * 유비쿼터스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임
- 디지털 도시와 미래 u-City 컨셉의 개발을 둘러싼 사안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계획, 실행, 검토로 u-City지표를 완전하게 하는 체제의 필요성 제안
 - 기초이론을 통해 주요 접근법으로 이용되고 필요조건을 확인하고 체계구성을 위해 문헌과 선행 실증연구 실시
 - Jane Fountain(2001) 기술계정 체계로부터 멀티조직, 멀티기능,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확장하였으며, 도시 관리자와 정책 입안자가 향후 벤치마킹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가능 하도록 모형이나 체계를 정의

< 세션 4 > 분석, 계획 및 방법론 1

- ◆ 경계지역기반 지리 및 통계 시스템 CentropeMAP and Centrope STATISTICS구축
(CentropeMAP and CentropeSTATISTICS—Cross-Border Geodata Infrastructure with User-Defined Thematic Maps)
CEIT(Central European Institute of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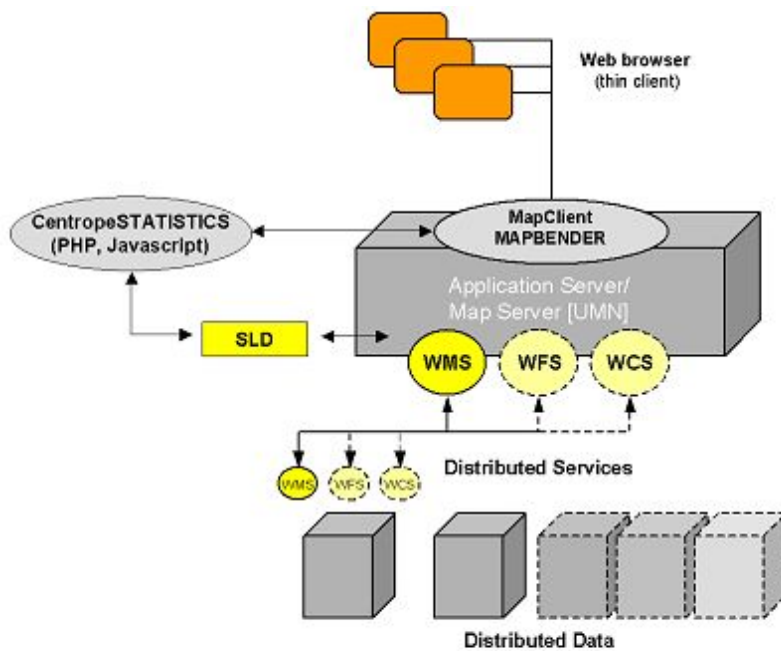
- ‘Growing together—together we growing.’이란 슬로건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사이의 역동적인 교차 국경 지역인 Centrope는 요지로서, 표준화된 공간 데이터집합에 대한 교차국경 접근은 가까운 미래에 이 지역의 공동개발을 위해 필수적



- CentropeMAP은 동오스트리아 계획협회(Eastern Austrian Planning Association PGO)을 대표하여 시작됨, 오스트리아 세 연방지역, 부르크엔란트, 비엔나가 협력하여 개발
 -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지역 기본지도로서 2003년 착수된

후 다른 4개의 나라에서 저장된 Geodata를 위한 접점을 제공, 처음 2년의 자료 교환은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CD-ROM의 GIS부분을 교환

- 서버는 2005년에 설치. 맵 서버, geodata, 지도를 보는 고객 관리. 이후 Centropemap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웹 접속 무료이며, 이용자는 같은 화면에 모든 지역을 함께 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받음
- CentropemapSTATISTICS로 확장하여 모든 지역에 대해 다운로드와 지도 보기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포함하였음
 - 통계자료는 지방 정부 당국에서 생산하고, 모든 지역에 대해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지며, 테이블은 쿼리/내보내기/종합 및 Centropemap 포털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구현
- 모든 파트너 지역의 대표는 일년에 2회 Centropemap과 Centropemap STATISTICS 고도화 작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있음
 - Centropemap 응용프로그램과 파일은 리눅스 서버로 관리, 모든 geodata와 Centropemap과 CentropemapSTATISTICS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보기는 open source software로 이용됨



【 제2일: 5.19(수) 】

< 세션 4 > 분석, 계획 및 방법론 2

◆ 지역계획 평가도구로서 지역지표시스템

(Territorial Indicator System as a Tool for Evaluating Territorial Strategies), Aldert DE VRIES, Xabier VELASCO ECHEVERRÍA NASURSA, Territorial Observatory of Navarre; Pamplona, Spain

- 지역계획을 평가하는 것은 주요한 이슈임, 종종 그 목표가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공정한 평가에 장애물이 될 여지가 있음
- Navarra 지역전략(ETN: Territorial Strategy of Navarra)은 스페인 자치지역인 Navarra에 대하여 유럽공간개발전망(ESDP)에서 정한 전략적 목표와 지침에 기초하여 만든 Navarra의 미래지역개발 계획을 작성
 - 계획에 따라 공간계획(POT)은 현재 Navarra의 5개 하위지역을 지원
- ETN은 2025년까지의 지역토지 개발에 관한 발전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집합을 포함
 - 전략의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한계를 넘어서 공간적 계획의 목표를 포함하고 의사결정자가 개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표 체계를 개발하였음
 - 측정가능한 결과로 지표를 구성함과 동시에 다른 정책분야에서도 지역정보로 통합될 수 있도록 공간자료기반(SITNA/IDENA: Spatial Data Infrastructure)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세션 4 > 분석, 계획 및 방법론 2

◆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유럽기준지표

(European Reference Indicators for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Maria Luisa MARSAL, Nadia FAVA, Universitat de Girona, Architecture, Urbanism and Town Planning Area; Girona, Spain

- 공공서비스는 공공편의시설할당 정도로 표현되어 '생활'이 거기에 적용하여 살아감. 시민은 그들의 거주지에 좋은 공원을 제안하거나 생산주체들은 산업단지 내에서 그들의 위치를 모색
- 서비스가 행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시설은 해당 도시계획 제안서에 포함되므로 도시계획내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보장할 것인지 불확실하나, 공공서비스 중 일부는 헌법상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 인정
- 시민의 권리(최소한의 공교육, 의료서비스 품질, 개인돌봄서비스 등)를 보호하는 기본적 공공서비스인 'public basics'*를 제공
 - 이용자의 인종, 문화, 교육, 국적 등이 변하지만 서비스는 변경되지 않음, 보편적인 본질은 1인당으로 그 가치를 표현하도록 함
 - 시설의 경우, 유럽국가의 헌법에 의해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기본 공공시설이 지정
- 진행 중인 연구의 목표는 서비스와 시설물간 관계를 규명, 기본 공공서비스와 기본 공공시설을 1인당 가치로 나타낸 지표를 작성하는 것
 - 서비스와 시설 지표의 등가관계에 대한 방법론 또한 연구대상이며, 최종 단계는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유럽기준지표로 '기본 가치 권고안(basic recommended values)'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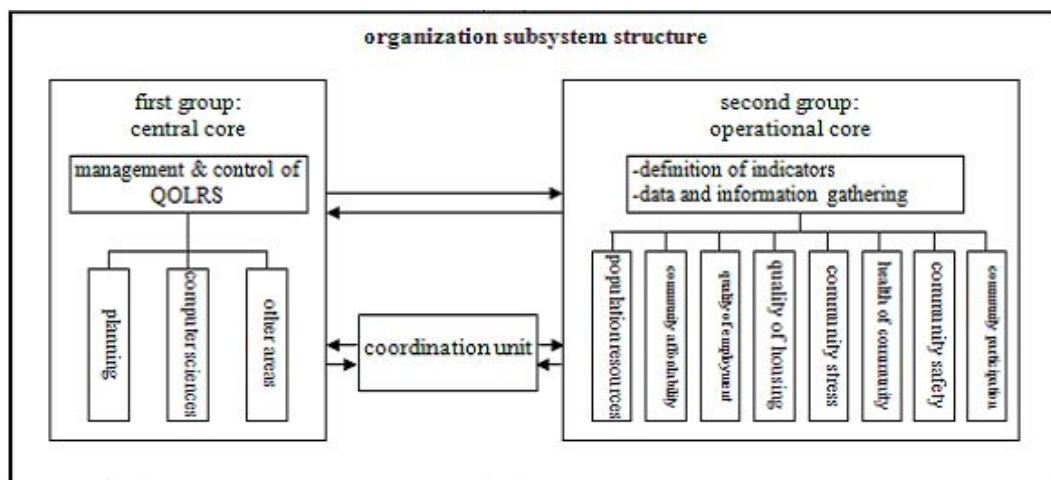
< 세션 1 > 건강한 도시와 삶의 질

- ◆ 삶의 질, 도시계획에서의 유의성 및 Esfahan 도시에서 삶의질 보고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 평가

(Assessing the quality of life(QOL), its significance in urban planning and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Quality of Life Reporting System(QOLRS) in cities, the historic city of Esfahan as the case example)

- 삶의 질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 핵심 내용은 삶과 삶의 질에 대한 모든 개개인의 기대하는 인식
 - 사회에서의 기회와 한계 대비 개인의 희망, 바램간의 차이를 표현함
- 삶의질과 도시계획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연구(Esfahan), 표본도시의 삶의질 보고 시스템(QOLRS) 도입 가능성 검토
 - QOL의 측정 기준과 지수에 대한 정보는 공식자료 및 시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확보
 - 고용의 질, 인구 자원, 지역사회 능력 수준에서 질적인 차이가 더 높았다는 것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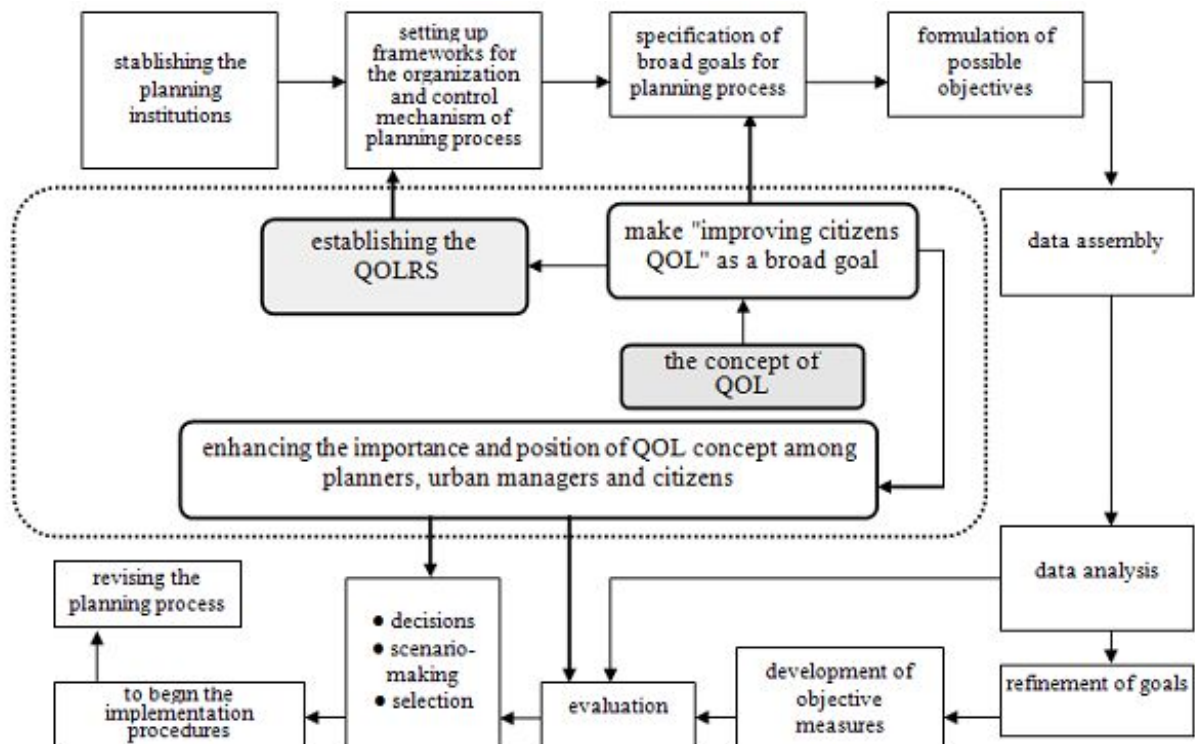
< 하위 시스템의 구조 및 8개 영역구분 >



- 적용된 QOL 척도의 측정 및 이를 바탕으로 도시에서 삶의질 보고 시스템(QOLRS)을 구축가능성을 제시
 - 지역사회 합의, 평가와 의사결정과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체계와 관리 매카니즘, 비전과 목표의 계획화와 생산 등 적용과정 구축함으로써 도시개발 계획과 관리과정 향상 가능성 제시

- QOLRS를 통해 도시 부문과 중앙계획시스템에서 시민, 도시계획 설계자, 도시정책 결정자간에 합의도달과 공감대를 위한 청사진 제안 가능
 - 일반적으로 조직간 관계와 도시 구조 개선을 위해 잘 고안된 개선안과 구체적인 이 연구 사례를 통해 통합된 도시계획과 관리시스템에 도달할 필요성을 강조

< 정책입안과정에서 QOL(삶의질) 개념의 효과 도식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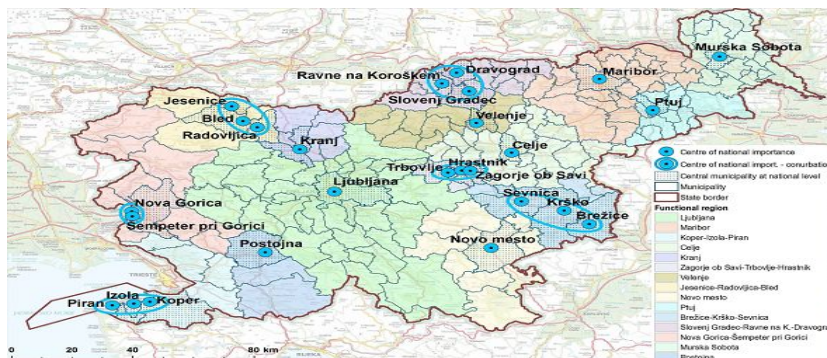


< 세션 1 > 공공의 공간 - 도시 삶을 위한 기초

◆ 도시중심에 따른 기능적인 정의로 분류된 지역
 Function Regions Defined by Urban Centres of (Inter)National Importance—The Case of Slovenia,
 Samo Drobne, Miha Konjar, Anka Liseč, Natašša Pichler Milanović
 and Alma Zavodnik Lamovššek

- 국제적으로 통합된 도시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이질적인 기능적 지역들을 분류
 - 다 중심적인(polycentric) 도시개발의 개념은 전통적 도시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된 도시시스템 개발과 관련, 도시간 협력, 교환, 네트워크 등의 근접성 원칙(principle of proximity)에 기반을 둔 지역 관점 적용
 - 도심과 연결성은 통근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장 접근성에 바탕
 - 사전정의에 따라, 핵심 센터로서 슬로베니아의 국가 및 국제적 중요성과 노동시장접근 차원에서 기능적인 지역분류는 EU에서 지역통계 구축 범위로 하고 있는 NUTS* 2와 NUTS 3 단계에서 분석
- *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 통계수집과 분석을 위한 EU 공통의 지역분류로 2003년 5월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의 규정에 법적근거를 둠
 - NUTS에 포함되지 않는 보다 세부적인 수준의 지역으로는 districts와 municipalities가 있으며 이들은 NUTS가 아닌 Local Administrative Unit(LAU)로 분류

< 슬로베니아 15개 기능지역 설정 >



【 제2일: 5.20(목) 】

< 세션 1 > 공공의 공간 - 도시 삶을 위한 기초

◆ 녹지의 면적(Size of Patch)

Agnieszka Kowalewska, Warsaw University of Technology, Warsaw, POLAND, David C. Prospero, Florida Atlantic University, Fort Lauderdale, USA,

- 살기좋은, 건강한 그리고 번영하는 도시의 기준은 단순한 편
 - 도시응집(agglomeration)은 분할되거나 기능적이고 공간적으로 구분, 생태적인 녹지는 인간환경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함

- 도시응집(agglomeration)내에 생태적인 녹지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
 - 녹지는 원산지, 연수, 크기, 모양 그리고 특성 등에 관한 "landscape signatures(경관 서명)" 및 생물다양성 및 온실가스(GHG)와 같은 "environmental responses(환경적인 반응)"에 의해 설명

 - Alberti외(2008) 연구는 녹지의 현존과 성과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대도시 규모 지역에서 개발됨

 - 대안적인 "녹지 구조"가 전반적으로 인간의 환경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녹지의 크기와 모양에 특별히 관심

< 기초연설 > 개방적인 도시

◆ 개방적인 도시(Open Cities)

Greg Clark, a lead advisor on global urban development for the UK Government, OECD and the Urban Land Institute

- 지난 25년간 국가이민 정책 등 많은 변화로 유럽내 주요 도시의 발전 수준상 지위 변화(예. 밀라노의 경우 유럽내 제3의 도시였음)
-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구증가 및 대규모 이동 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Opencities 프로젝트 제안
 - 오픈시티 프로젝트는 많은 도시가 개방되어 개인이 인간 중심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증대시키는 방법을 구체화 하는 것임
- 도시의 발전단계를 크게 지역거점, 특화된 거점,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허브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도시개방 지표에 따라 5개 도시(마드리드, 더블린, 토론토, 오클랜드, 암스테르담)에 대한 사례연구 실시

< 다차원적인 접근에 의한 도시개방 지표 >

영역	지표 (D: data, O: Others)	요인
1. 인구	Total City Population(D), Population change(D)	Core
2. GDP	GDP (D), GDP per capita(D), GDP change(D)	Core
3. 소득	Income per capita(D) Internationalisation	Core
4. 노동력	Total city region labour force(D), Total National Labor force (D) Ratio of city/region-total national available labour pool (D) Highly qualified National Labour Force(D), High qualified foreign labour force(D) Non-Highly skilled labour force (D)	Core
5. 실업	Total unemployment rate (D) Difference unemployment rate (D)	Core
6. 연령비	Age dependency ratio (D) Age profile of foreign population versus national population (D)	Core

7. 이동	Diversity of international population(D) Stock of international population (D) Inflow of international population(or net change of int population)(D) International retirees(D), Foreign students in upper secondary education(D)	Core 국제화 /Core 국제화
8. 교육	International students(D), Quality of universities(D) International schools(D)	국제화
9. 접근장소	Global accessibility(D), Number of hotspots(D)	국제화
10.진입장벽	MIPEX: Long- term residence(D), MIPEX: Family reunion(D) MIPEX: Naturalisation(D), MIPEX: Labour market access (D) Work permits(D), Access to property market (D)	리더십 (거버넌스)
11. 자유	Freedom House Index(D), Freedom of investment (D) MIPEX: Political Participation(D), MIPEX: Anti- discrimination(D)	리더십 (거버넌스)
12.국제행사	International festivals(D) : could be merged International fairs(D) – could be merged International meetings(D) : could be merged	국제화
13. 국제적 위치	Embassies(D), International companies(D), City Classificatio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D), International passengers (flight)(D) International TV channels(D)	국제화
14.국제흐름 /동향	Tourists intensity(D)	국제화
15.생활수준	Livingarea(average)(D), Flatrents(D), Taxation(highincome)(D) Quality of life(other)(O) : indicator not yet fully defined. Might be a few Cost of living(O) : indicator not yet fully defined. Might be a few	삶의 질
16. 다양한 활동	Languages city website(O), Welcome service(O), On line information service(O) Migration department(O), Interpreter services(O) Start-coaching programme(O) Integration actions(O) : indicator not yet fully defined. Measurement requires further thought	리더십 (거버넌스)
17. 만족도	Feeling of safety(S),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services(S) Perception: Immigration & economy(S), Perception: Immigration & cultural live(S) Perception: Immigrants influence on the country(S)	삶의 질

Understanding Opencities, British Council 2010

< 폐회 > 2011년 개최지 및 주제발표

◆ 독일 에센(Essen),

“안정된 거주를 위한 변화 : 도시와 지역의 라이프사이클”

(“CHANGE TO STAY STABLE: LIFECYCLES OF CITIES AND REGIONS”)

Ⅲ 시사점

- British Council의 Open cities(개방 도시) 지표는 개방성 차원에서 다양한 도시민의 삶의 질 등 지표를 포괄한 것으로 도시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유용한 비교지표
 - ⇒ 한국도시통계(행안부 수탁과제)의 통계지표체계 선진화를 위해 핵심 지표 선정 근거 등으로 활용

- 환경 및 지속가능한 성장관련 도시경쟁력 지표로서 '녹색도시지표'의 작성에도 관심 필요
 - 비정부기관인 민간 기업체(지멘스社)가 유럽 30개 도시의 녹색 도시 지표 결과발표에 이어 금년 10월경 아시아 23도시 발표예정
 - ⇒ 한국도시통계 체계 중 환경차원의 지표 선정시 관련 항목의 포함될 수 있도록 중요성 및 작성가능성 등 검토

-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삶의 질 문제는 범세계적 화두일 뿐 아니라, 국가-지역, 학문-행정-산업 등 제반 영역에서 역점 추진, 현재 실행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
 - 특히, 지역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운 유럽 여러국가의 도시행정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활동이 매우 공격적
 - 다만,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이 반영된 지표 및 통계자료는 여전히 초보적 제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간 공신력 있는 비교는 불가한 형편
 - ⇒ 국제 도시간 비교·경쟁은 도시별 지속가능한(환경 및 삶의 질)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 중장기적으로 도시별 비교가능한 객관적 지표의 보급과 이를 위한 통계작성 지원이 필요

【부록】 세부 회의주제

□ 회의 일정

세션*	1	3	4	5
18일				
08:00~09:30	등록			
09:30~10:30	Opening & Keynote-speeches (도시의 미래 / 모두를 위한 도시)			
11:00~12:30	① 미래도시에 대한 관점 - 사회자본, 발전과 통합, 지속가능 도시 등 ② 소통과 참여를 위한 새로운 방안			
14:00~16:00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미래도시창조 - u-City Index	분석계획방법론1	
16:30~18:15	지속성과 삶의질의 주요요소	도시구조의 재설계 - smart growth	인적천연자원관리	공간계획구조
19일				
09:00~10:30	도시발전 전략 기술	소수자 요구의 충족	분석계획방법론2 - territorial Indicator System	
11:00~12:30	지속 가능,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전략	현대사회 위험관리	도시발전에 따른 현상	자료수집방법
14:00~16:00	지표, 순위화가 주민 삶의질에 미치는영향	더 나은미래를 위해	분석계획방법론3 - Indicators for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혁신적계획수립도구
16:30~18:15	건강한도시와 삶의질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미래설계를 위한 주체별 역할	모두를 위한 mobility
20일				
09:00~10:30	mega cities에서의 문제 이슈	이동계획과 환경	도시유형, 도시구조	
11:00~11:40	open cities	지속가능한도시계획		
11:40~13:10	공적 공간	분석계획방법론4	도시유형, 도시구조	“상호연결된 village”
14:00~15:30	도시구조에서의 지식과 혁신	도시-지역역할기능을 위한 인프라	현 도시조직의 역동성	
15:30~16:00	클로징 세션			

*세션2는 독일어로 진행

※ 발표논문 참조사이트

<http://programm.corp.at/cdrom2010/en/index.html>